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서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 04



Life

[산업] 신형 쏘나타 돌풍 닷새만에 1만대 돌파 06



여행 단신

한반도투어 맑고 청정한 울릉도로 봄 여행을

한반도투어(사장 김삼원)가 봄에 떠나는 신비의 섬 '울릉도 2박3일' 상품을 출시했다. 봄을 맞아 2박3일동안 울릉도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상품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출발해 묵호(강릉)·울릉도·육로관광A코스·육로관광B코스·성인봉·독도·케이블카·독도박물관·행남산책로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한반도투어 '울릉도·독도 2박3일' 상품은 매일 출발가능하고 왕복셔틀버스비용, 숙박(2박5식), 관광지 입장료 모두 포함 상품이다. 1인 금액은 26만원부터다. (02)777-8883

누림여행사 대마도 1박2일... 역사·먹방 여행

누림여행사(사장 황용만)가 국경의 섬 대마도 여행을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대마도여행은 당일 및 1박2일로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대마도 관광은 첫날 도착해 전용 버스로 한국전망대, 와타즈미신사, 예보시디케 전망대, 만관교 등을 관광하고 둘째날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최익현 선생님 순국비 등을 관람한다. 대마도 1박2일 상품은 일·월~목요일 출발 14만9000원, 금요일 출발 20만9000원, 토요일 출발은 29만9000원이다. (02)757-2500

광화문포럼 중소여행업 생존 위해 차별화 필요

광화문포럼이 '중소여행업 상생방안—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13일 60여명의 여행업계 리더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광화문포럼 이장환 회장은 "작년 한국 출국자 수가 2870만명에 이르고, 3·4분기 국내외여행업 여행사 숫자가 1만7000여개에 달한다. 글로벌 OTA여행그룹의 성장세와 공유경제산업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며 "이런 여행산업의 빠른 변화는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옹형수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 담당 컨설턴트가 '중소여행업 상생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그는 "여행사는 수익을 만드는 신상품·차별화된 상품 등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관광인산악회 관광인들 북한산서 시산제 가져

관광인산악회(회장 이용철 주은항공 대표)는 지난16일 북한산 우이동에서 관광인산악회 시산제를 가졌다. 올해 6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산제에는 항공사 여행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2019년 관광업계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시산제에 앞서 관광인들은 북한산 우이동을 출발해 대동문을 거쳐 도선사로 하산하는 동안 전날 내린 눈으로 뜻밖의 눈꽃산행을 하는 행운도 가졌다. /이민희 기자

스트레스 날리고 먹방 즐기고 2시간만 날면, 일상 탈출 맘껏 자유!



광 오사카 이색상품.

/모두투어

메트로 트래블

"여행은 편하고 안전해야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한다. 맛있고 색다른 음식도 먹어야 한다." '부킹닷컴'이 한국인 1805명 포함해 전세계 31개국 5만3492명을 대상으로 '여행행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요약된 여행의 목적이다.

한국인의 경우 '바쁜 직장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음식 경험' 등 변화를 추구하거나 경험을 넓혀주는 여행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짧은 해외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12개월 동안 부킹닷컴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예약한 여행지 톱 3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로 뽑혔으며 비행기 2시간 이내 소요되는 해외 여행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인이 떠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시티투어▲관광지 투어▲해변 바캉스▲미식투어 순으로 밝혀졌다.

눈에 띄는 점은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여행욕구가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여행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바쁜 직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와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가 81% 꼽혀공동 1위에 올라갔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상당수가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 등의 이유로 여행을 떠난다고 답해 최근 '먹방' 및 '국방'의 인기가 여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숙소를 예약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사이트나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 선택 기준에 있어 국내여행객들 약 4분의 3이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여행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먹거리' 및 '뛰어난 자연경관'도 여행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로 꼽혔다.

한국인 여행객 76%가 올해 여행 중 문화 교류를 통해 기술을 배울 계획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여행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여행 및 관련 상품이 다양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알아두면 좋은 3~4월 여행정보

여행 플랫폼 '아고다'를 이용하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와 BC카드에 적용되며 카드사별로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제공된다. 또 아고다는 국내 원화결제 가능시스템을 구축했다.

일상 변화 추구하는 여행 욕구 높아 비행 2시간 이내 해외 여행지 선호

깨끗한 자연·온화한 날씨 여행지 급부상 아이 동반·벚꽃축제 등 이색여행 상품도

아고다에서 삼성·NH·KB국민·하나·롯데·BC카드 로 결제하면 해외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숙박 비용을 3% 절감할 수 있다.

여행 솔루션 '카약'은 항공권 검색 시 항공기 기종을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을 15일(미국 동부시간)부터 전세계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항공기 기종을 제외한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은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은 10개 국가로 떠나는 항공권 검색량을 분석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기 시작한 최근 한달간(2월 11일~3월 10일)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았던 10개국 항공권 검색량은 전년 대비 최대 2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 기준)

한편, 가장 성장 폭이 큰 여행지는 예능 여행지로 떠오른 포르투갈(+230%)이었다.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 호주(+171%)와 천혜·자연을 사랑하는 노르웨이(+132%)가 뒤를 이었다.

깨끗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신흥 여행지도 급부상하고 있다. 여행 검색엔진 '스카이스캐너'가 최근 1~2월 간 항공권 검색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 신규 취향 여행지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성장한 곳은 베트남 푸꾸옥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81% 상승했다. 푸꾸옥 다음으로는 나트람이 전년 동기 대비 10%증가했다.



아름다운 절벽마을 포르투갈 아제나스 두마르.

/트립닷컴

31개 유럽 국가를 기차여행 할 수 있는 '유레일'은 유럽 서머타임과 함께 유레일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대 37%까지 인하되고, 4월 9일까지다. 원컨트리 패스도 10% 추가 할인된다.

알로하 '하와이안항공'은 전 노선 승객 및 미주 공항리운지 이용객에게 '라이언커피(Lion Coffee)'를 제공한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로 취항하는 '터키항공'은 새로운 '이스탄불 공항'으로 완전히 이전한다. 4월 5일 금요일 오전 3시부터이며, 총 45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내서 벚꽃축제를...이색상품도

'모두투어'는 상반된 테마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색상품을 출시했다. 4월부터 매주 월요일·수요일 티웨이항공(TW)을 이용해 출발하고, 월요일은 인천-오사카-광, 수요일은 인천-광-오사카 일정으로 진행된다.

직판 여행사 KRT여행사는 아이 동반 만족도 높은 해외여행을 위해 산양분유기업 아이베넷과 손잡고 기획여행전을 선보인다. 4월 30일까지 KRT '광 아이베넷 PACK'을 예약한 아이 동반 고객이 대상이다. 아이 연령에 따라 베베 PACK, 꼬마 PACK이 룬당 1개 증정된다. 베베팩 100세트, 꼬마팩 200세트가 준비돼 있고, 선착순 300팀에게 증정 예정이다.

호텔 예약 서비스 '호텔스닷컴'은 최근 일본 실내에서 벚꽃을 즐기는 '실내 벚꽃놀이'도 새로운 문화로 떠오른다고 알려졌다. 실내 벚꽃놀이(에어하나미)란 실제 벚꽃 대신 사진, 영상, 조화, 음식 등으로 벚꽃놀이를 즐기는 행위로 번잡한 군중 대신 호텔, 식당, 스파 등에서 편안하게 벚꽃 분위기를 즐기길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반영된 트렌드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한국인 세대별 여행 패턴을 분석했다. Z세대(18~24세)부터 밀레니얼 세대(25~39세), 베이비붐 세대(40~59세)까지 총 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Z세대는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밀레니얼 세대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여행에 가장 적극적인 건 Z세대다. 55.2%가 상반기에 국내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한다. 해외여행 계획이 가장 많은 세대는 밀레니얼세대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